SmArt 동강대학
나를 뛰어넘다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광주 20/28℃ 목포 20/26℃ 여수 21/25℃

단기 4344년 (음력 7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47호 1판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인생60파워 정기예금 금리 5.32%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효

투표율 25.7% 그쳐…오세훈 시장 사퇴 안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혜화동 자치회관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전쟁' 여당 참패 정국 격랑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전체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해 개표가 무산됐다. 〈관련기사 3·4면〉

24일 오후 8시까지 서울시내 220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5.7%를 기록했다고 서울시선거관위원회는 밝혔다.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53.9%)뿐 아니라 지난 4·27 서울 중구청장 재선거 투표율(31.4%)에 훨씬 못 미치는 기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실시된 주민투표는 개표 없이 무효화됐으며 무상급식은 기존 방식대로 시행되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사퇴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4학년은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투표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9개월간 이어진 무상급식 논쟁에 승패가 갈리게 됨으로써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투표 결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 및 보궐선거 등과 맞물려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및 대선 주자들의 정책대결 문제와도 관련돼 있어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승리를 거머쥔 민주당은 즉각 공격에 나섰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투표 마감 직후 "이번 '오세훈 주민투표'는 명분과 도의도 없고 시대흐름이나 국민 요구와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오 시장의 패배는 예견된 것이었다"며 "오 시장은 응분의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충격에 빠졌다. 한 당직자는 "'오세훈 쓰나미'다. 후폭풍이 가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사퇴시기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면 10월에, 그 이후면 내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기 치러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한신협 대구세계육상대회 공동취재단 운영

전국 9개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오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공동취재단을 투입, 독자여러분께 경기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은 박진감 있는 경기 내용과 인간미 넘치는 선수들의 승부 뒷이야기 등을 발빠르게 취재해 각 회원사 지면에 공동으로 게재할 것입니다.

공동취재단은 또 각 종목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관전평과 경기분석도 공동 게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 광주일보= 김여울 김진수 기자
- 매일신문= 이호준 최두성 이채근 김태형 성일권 정운철 우태욱 기자
- 강원일보= 박승선 기자
- 경남신문= 조윤제 이헌장 기자
- 경인일보= 신창윤 차장 김종화 기자
- 대전일보= 원세연 기자
- 부산일보= 김진성 장병진 기자
- 전북일보= 김준희 기자
- 제주일보= 김문기 기자

光州日報社

리비아 반군 승리…카다피 탈출

트리폴리 완전 장악 "72시간 내 전국 해방"

리비아 반군이 23일(현지시각) 무아마르 카다피 진영의 핵심 거점인 바브 알-아지지야 요새를 장악, 승리의 깃발을 내걸었다. 〈관련기사 5면〉

반군은 이날 카다피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요새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그러나 카다피가 이 요새에 은신 중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요새 내에서 카다피의 행방을 찾을 순 없었다고 반군은 밝혔다.

카다피군이 전국 곳곳에서 미사일과 탱크를 동원 반군에 일격을 가함에 따라 반군이 완전한 승전보를 울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군과 카다피군은 카다피의 고향으로 알려진 시르테에서 운명을 건 최후의 일전을 치를 전망이다.

반군은 이날 오전 요새에 진입하기 위해 카다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카다피군은 탱크와 박격포 등을 동원해 반군의 진입을 저지하려 전력을 다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은 최근 들어 가장 강도 높은 폭격을 요새에 집중시키며 카다피군의 공격을 무력화했다. 반군 수백 명은 나토의 공중지원에 힘입어 이날 오후 요새의 시멘트 벽을 부수고 마침내 진입에 성공했다.

진입에 성공한 반군은 금빛으로 된 카다피의 두상 조형물을 짓밟고 발로 차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하는가 하면 허공에 총을 발사하며 요새 진입을 자축했다. 요새 내 깃대에는 반군의 깃발이 새로 게양돼 펄럭였다.

압델 하킴 벨하지 반군 사령관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전투는 이제 끝났다"며 요새의 90%를 장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군 측 이브라힘 다바시 유엔 주재 대사는 "반군은 알-아지지야 요새를 완전히 장악했다"며 "리비아는 72시간 안에 해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은 반군 대표기구인 과도국가위원회(NTC)를 리비아를 대표하는 합법정부로 잇따라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디스 日신용등급 강등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3일(미국 현지시간) 일본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단계 강등했다.

무디스는 이날 일본의 국채 등급 하향조정을 발표하면서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일본의 대규모 재정적자의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를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설명했다.

무디스는 또 3월11일 일본 열도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 이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본의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J프로젝트 구성·부동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업 지지부진 토지거래 실종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내 구성·부동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더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남군은 24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지역인 산이면 구성·부동지구 43.8㎢에 대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2004년 8월 21일부터 7년간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기간 토지 거래가 438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2009년 이후 2년간 토지거래는 80건(135필지 31만4648㎡)에 불과해 더이상 지정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J프로젝트가 더디게 진행되는데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한몫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써 7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거래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남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의 부동산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 접수기간 : 9월 9일(금) 까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고품질 녹차
작설차
친환경 다원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의 차만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